

협회소식

“향후 정부 보상금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 적용하겠다”

- 정부관계자, ‘돼지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 협의회’서 밝혀

최근 전국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6일 본회는 김건태 회장을 비롯, 김동환·이병모 부회장, 남성현 충남도협의회 회장,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대상농장, 한국냉장, 롯데햄, 농협 목우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본회의 요청, 농림부 중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본회는 “서울시세가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은 이미 상실했다”며, “서울시세의 심한 등락 폭으로 인해 농가와 업체에 혼선만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농협공판장의 비거세돈 및 비규격돈의 출하비율 높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에서 서울시세 이외에 인센티브 등 별도 정산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시세 적용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국시세 적용하며 인센티브 조절로서 전국시세 적용으로 생긴 적자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육가공업체에서 돼지기준가

격을 전국 도매시장가격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육가공업체들은 “서울시세의 대표성 상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수출부위 재고가 급증하는 등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성별 출하비율 등 자료를 토대로 실무회의를 진행,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 조정래 사무관은 “앞으로 서울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상실한 만큼 정부 보상금 등은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지급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이 합리적인 거래 기준가격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농업연수생 최단 시일내 농가 배정 요청

- 본회,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 협력단에

본회는 지난 6월 30일 최근 외국인농업연수생 연수업체 배정 지연과 관련, 외국인농업연수생이 해당 농가에 빠른 시일내 배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 협력단에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외국인농업연수생 농가 배정

지연과 관련, “다수의 양돈장에서는 동 연수 생 도입 예정으로 인해 내국인의 양돈장 채용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력 공동화 현상 발생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외국인농업연수생이 최단 시일내 농가에 배정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별 도입시기, 국가명, 인원 수, 연수업체 당부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본회가 일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 계획에 대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검사비용 정부 부담해야”

- 본회, 농림부에 종돈장방역관리요령(안) 검토 요청

본회는 최근 종돈장방역관리요령개정(안) 중 가축전염병 검사비용 조항과 관련, 정부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동 법(안)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30일 종돈장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소유자 등이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종돈장방역관리요령(안) 마련, 고시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및 돼지오제스키병은 국가 차원에서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질병으로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중 제5조(수수료의 면제)에 해당된다”며, 정부에서 가축전염병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검정소 등 개량기관 및 AI센타 종돈에 대해서 AR, PED 검사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동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살처분농가 가축재입식 기간 ‘최소 5~6개월’ 쥐야

- 본회 농림부에 가축 재입식 기간 연장 요청

본회는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이동제한 지역내 살처분 농가의 후보돈 등 가축 재입식 자금을 가축입식 전에 선 지급해 줄 것은 물론, 가축입식 제한기간을 선지급 된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5~6개월 후로 연장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본회가 지난 6월 13일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의 조기 농장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축재입식후 지원되던 가축입식자금을 선지급토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6월 18일 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 자금 지원 신청기간을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식시’에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추가 조건에서 가축입식 기간을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입식계획 대비 실적 미달시 해당 두수분 지원액을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에 본회는 7월 22일 “일선 양돈장에서의 후보돈 재입식 주기는 임신기간, 공태기, 재임신 기간, 분만자돈수에 따른 사육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단기에 일괄적으로 후보돈을 재입식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밝히고 농림부에 가축입식자금지원중 현

행 '용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내에 입식완료' 사항을 최소 5~6개월내 입식완료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HC 살처분농가 축분처리 비용 지원 요청

최근 본회는 금년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분처리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7월 2일 금년 전북 익산·경남 함안 등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의 축분처리 비용을 해당 시·군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줄 것을 각 도에 시달렸다.

전국 순회 교체모돈 수출 사업설명회 개최

- 각 도청·지역양돈조합·양돈단지·농가와 적극 협력키로

본회는 제주도산 교체모돈 필리핀 수출에 이어 내륙지역 교체모돈 필리핀 수출을 위해 각 도청과 지역양돈조합·양돈단지 및 농가와 적극 협력키로 하고, 본격적인 수출 사업에 착수했다.

본회는 지난 6월 24일 칠곡 농민회관에서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최영렬 부회장,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강삼순 경북도 축산과장, 김창돈 봉화축협조합장, 양돈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체모돈 필리핀 수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조합·양돈

단지 및 농가와 적극 협력키로 하고, 양돈농가들로부터 교체모돈 기증 약정서를 받는 등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지난 6월 25일에는 본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송정기)와 충남도협의회(회장 남성현) 각 사무실에서, 26일에는 부산경남양돈농협 회의실에서 각도 축산과 관계자를 비롯, 지역양돈조합장, 양돈단지 등 많은 양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앞으로 수출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나머지 도협의회와 지부(회)를 방문,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체모돈 수출위해 행정 협조 요청

- 본회, 부산 등 4개 광역시·경기도 등 7개 도 축산과에

본회는 최근 추진 중에 있는 내륙지역 교체모돈 필리핀 수출사업과 관련해 수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등 7개 도 축산과에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는 협조문에서 "최근 양돈수급 안정과 돈가 상승을 위해 교체 모돈 1만두 수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각 시·도로 하여금 이번 수출사업이 본회 소속 회원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양돈농가들이 이번 수출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축산담당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갱신비 지원이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사퇴 반대한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퇴 반대 성명서 발표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6일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사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축산물 수입 확대와 DDA협상 진행 등 축산업계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온 농림부장관의 급작스런 사표 제출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농림부 장관의 사퇴로 인해 바뀐다면 농축산업 정책 변화 등으로 혼돈이 야기되고, 100만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올바른 축산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반려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KBS 제1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 프로 지속돼야

- 축단협·농단협 회장단 KBS 항의 방문

최근 KBS 제1라디오 농업방송 프로그램

‘밝아오는 새아침’ 방송 중단 위기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7월 1일 KBS 라디오센터를 방문, 방송사장과 관계자를 만나 동 프로그램 계속적인 방송을 요청했다.

이날 축단협 김건태 회장 등은 방송사장과 관계자를 만나 최근 농·축업계의 어려운 실정뿐만 아니라, 농업방송의 중요성과 역할 및 기능, 농축산인들의 입장·요구사항 등을 전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서 두 단체는 “농·축산업자의 현장의 어려움과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송매개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DDA 농업협상 및 농가부채문제 등 현 농·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관련 전문 방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동 프로그램 지속적인 방송을 요청했다.

청정돈육 생산 우수농장 인증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

- 180농가 설문조사 결과 25%가 차량 소독 시설 미설치

국내 양돈장 4개 가운데 1개 농장이 농장입구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 돈육생산 우수농장 인증제’와 관련,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8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에 대해 74.4%가 설치를 한 반면, 24.6%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장입구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는 응답자의 81.1%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7.8%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항생제, 호르몬제, 농약 등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출하돈 관리에 대해서는 55.6%만이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2.2%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유해물질에 대한 출하돈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32page 참조>

축단협, 축산물소비 홍보관 건립 추진

향후 축산물 소비홍보를 위한 축산물소비 홍보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축산물소비홍보 전용 공간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축산업 발전 및 국내 양축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코자 축산물소비홍보관을 건립키로 결의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축단협은 축산물소비홍보관 건립으로 인해 연중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축산물 관람 기회 및 소비촉진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계와 연계한 축산 현안문제 해결 추진

- "산학협동 활성화회의"에서 정례적인 모임 갖기로

본회 김건태 회장은 지난 7월 15일 한국동

물자원과학회(회장 고영두)가 주최한 '산학협동 활성화 회의'에 참석, 본회와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업인 부채 대책, DDA 협상시 국내 축산보호 대책, 축산업 등록제 등 당면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는 한편,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와 동물자원과학회는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 마련을 위해 모임을 갖기로 하고, 당면 축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본회, 안기홍 전 전무에 재직기념패 전달

본회는 지난 7월 1일 안기홍 전 전무가 협회 전무로 재직기간 중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김건태 회장의 전직원 일동 명의의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다.

제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89만원

지난 7월 10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5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80만9,01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3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4두 등 총 125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122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89만8,256원(86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9만5,833원(36두)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경

FINE(대표 이경록) 듀록 수컷(선발지수 264 점) 최우수돈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최균(경태농장)씨에게 최고가 2백8십만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전북도협의회장에 송정기씨 선출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전북도협의회는 지난 6월 5일 전주완주지부 사무실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관호 전회장의 사임에 따라 송정기씨(51)를 신임 전북도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북도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정기씨는 현재 임실지부 회원으로 1997년 전북도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북 임실군 관촌면 북흥리 소재에서 110두 정도의 임실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장성지부, '여름철 돼지관리' 세미나 개최

광주장성지부(지부장 차장곤)는 지난 10일 지부 회원들 뿐만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참석 한 가운데, 지부 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의 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세진 컨설턴트 김기룡 원장의 '여름철 돼지관리'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여주지부(지부장 김건호)가 말감농원에서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와 함께 이천 AI센터에서 '여름철 혹서기 수태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남원지부(지부장 이용문)도 이오형 박사의 '살모렐라 세균'에 관련된 세미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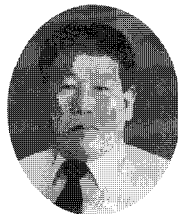
평택지부, 농장출입구 소독 등 시연회 개최

평택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오는 22일 평택 남부면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시연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호근 지부장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으로 소독설비시설 의무화됨에 따라 각 농가의 효율과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선택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장출입구 소독 시연회 뿐만 아니라, 차단기 설치 시연 및 기타 방역장비 업체별 전시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합천지부장에 권용석씨 선출



권용석 합천지부장

합천지부는 지난 6월 16일 지부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권용석씨(52)를 신임 합천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합천지부장으로 선출된 권용석씨는 경남 합천군 울곡면 임북리에서 85년부터 양돈업을 경영 해오고 있으며, 현재 2,500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다. **양돈**